



International
Day of
Cooperatives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기 념 식

2023.7.1.(토) 오전 10시 ~ 11시 45분
부산 벅스코 컨벤션홀 1층

주최 및 주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부산광역시협동조합협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식순]

시 간	내 용	세부내용
10:00~10:15	식전 공연	협동조합 공연단 (색소폰 4중주)
10:15~10:20	내빈 소개	
10:20~10:25	환영사	신창호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10:25~10:35	축사	이승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국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10:35~10:45	기념사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손종현 (사)부산광역시협동조합협회 회장 최창호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서면)
10:45~10:50	축전 (영상)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
10:50~10:55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축하 메시지	전국 협동조합인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
10:55~11:05	협동조합 유공자 포상 전수식	대통령상/국무총리상/부산광역시장표창
11:05~11:10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기념 퍼포먼스	기념식 퍼포먼스
11:10~11:40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기념 강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의 사명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11:40~11:45	기념사진 촬영	기념 촬영 및 폐회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사

기념사

한국의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원, 협동조합 친구 여러분!

협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하루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저의 메시지를 나누고 감사를 표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고 존엄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각 공동체에서 자원과 기회를 창출하고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심각한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답이 지역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도시,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기업 모델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치와 원칙 아래에서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일, 생산, 소비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요구를 가장 잘 해결하는 모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가장 지속적인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척자들이 거의 2세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환경적 과제에 우리는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상 방문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한국 협동조합의 경험은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창설 128년을 맞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00개국 이상에서 온 317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대한 가족을 더 나은 세상의 주역으로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배려심 있고, 평화로운 세상.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저도 협동조합의 날로 여러 분들을 즐겁게, 자랑스럽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협동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입니다.

2023년 7월 1일 오늘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1주년과 ‘부산광역시협동조합’ 설립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뜻 깊은 날을 기념해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과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장 상임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101주년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슬로건 아래 각국의 협동조합이 자국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빈곤인구 비율 OECD 평균 이하로 감소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최소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등의 세부목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협동조합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출범한 단체로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러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도 국내외 협동조합 단체와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곳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협동조합원분들과 상생하고 부산 시민, 조합원분들의 권익을 높이는 일에 한국협동조합협의회도 함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 협동조합의 날’ 101주년과 ‘부산광역시협동조합’ 설립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념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최창호



기념사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 축전

오늘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기쁩니다.

협동조합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역사가 년 이상 되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 활성화는 현장 상의 임무에 나와 있습니다. 협동조합 모델은 사람들 간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삶과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협력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빈곤감축에 기여하고 위기의 시기에 회복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검증된 협동조합 모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파트너십을 통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는 가입니다. 고유의 가치와 원칙을 가진 협동조합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이는 올해 4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작년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결의안에도 협동조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또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호를 가속화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써 전 세계 각국이 4억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소외되어 있는 40억 인구에게 사회보장제도혜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계협동조합의 날은 협동조합이 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매우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날입니다

질베르 응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기념사 (현장 기념사 원고)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전국에서 오신 협동조합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박남수입니다. 오늘은 백한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제5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국에서 모인 협동조합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니다.

세계 협동조합의 날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경험과 교훈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현재에 협동조합이 도전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 사회적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날입니다.

올해 세계 협동조합의 날은 백한 번째가 됩니다. 100이라는 완성의 숫자에서 다시 하나가 더해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 전 세계의 협동조합인들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주제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가꿔 가는데 어떻게 협동조합이 기여할 것 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기후변화의 추세, 속도는 지구와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일로에 있고 이는 인류 공동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초래한 세상살이의 관성과 속도는 아직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동조합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과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0년은 UN이 정한 SDGs,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시점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유럽의 각 나라와 미국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후위기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SG 등 국제 통상, 투자의 기준, 규범도 지속가능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후문제, 에너지문제, 식량안보문제, 지역 소멸과 불균형 문제, 경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우리 발등에 떨어진, 해결해야 할 시대적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은 어떤 도전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과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전에 나서야 할 것입

니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계속 되어온 기간 동안,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10여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한낱, 한시도 잊지 않은 우리의 소명이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한국에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씨앗을 심은 지 10년입니다. 개별적인 협동조합 현장은 매일 매일이 고군분투의 나날입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을 협동조합 전체 섹터의 관점에서 되돌아보자면 협동경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쌓아온 축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료, 에너지, 돌봄, 교육과 육아, 일자리, 지역경제의 기반 재구축 등 협동조합들은 조합을 설립하고 연합회를 결성하면서 협동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동의 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의 생활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 기반을 지키고 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구상과 도전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협동경제의 활로를 그 질과 규모에 있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해 가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법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사이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백한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 한국의 기본법 11년을 맞아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함께 오늘을 기념하게 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총회일정과 겹쳐서 오늘 함께 자리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협동조합협의회를 이끌고 계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께서 개별법 협동조합 회원의 뜻을 모은 기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이 서로 협력할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협동조합의 날을 모두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애써주신 부산광역시와 주무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서 협동조합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고군분투하시는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책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계 협동조합의 날의 의미를 깊은 식견과 통찰로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명에 대해 강조해주실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김형미 학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과 전국의 협동조합인 여러분, 우리가 맞바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내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되려 우리들의 시대적 소명을 더 선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역할은 더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고 함께 도전하고 손을 잡고 협동해갑시다.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 강연



김형미

(사)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제101차 세계 협동조합의 날 &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강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의 사명

김형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학회장, 경제학 박사)

부산시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제101차 세계 협동조합의 날·부산광역시 협동조합 11주년을 함께 기념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세계 협동조합의 날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이란 슬로건으로 전세계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세상을 전환할 것: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한 후 지속가능발전은, 지구별에 사는 인류의 공통 목표가 되었습니다. 각 회원국은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 수준을 스스로 점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도 2018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정책과제를 정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이란 인류사에서 중요한 목표연도에 부산시는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부산 엑스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감을 먼저 밝히면서, 협동조합 연구자로서 ‘세계 협동조합의 날’에 협동조합의 보편적 사명에 관한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 참화를 극복하고 평화를 재건하려는 협동조합인들의 열망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홀로코스트 백과사전’ 웹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1000만 명, 부상자는 2100만 명을 넘어선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중 전투가 벌어진 전쟁이었고 기관총, 독가스 살포 등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¹⁾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서부전선에서 전투가 끝나는 것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파괴적인 영향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전쟁의 참상이 생생한 유럽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대립의 원인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인류가 전쟁 발발의 원인으로 격화되는 경제·사회·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끈질기게 찾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사실 ‘세계 협동조합의 날’은, 협동조합인들의 평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서 탄생했습니다. 128년 전인 1895년,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과 대립이 점차 고조되는 제국주의 시기에, 협동조합인들은 정치 이념과 국가별 차이를 넘어서 불편한 이동을 감수하면서 모이고 협동조합 운동의 국제적인 단결을 주창하는 국제조직으로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결성했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ICA 대회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했던 시기는 1902년 맨체스터 대회였습니다. 1913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ICA 대회에서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평화 결의문」(발의자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샤를 지드 교수)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터졌고 1913~1920년 사이에 ICA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고, 전쟁 후 협동조합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전쟁의 상흔과 폐허, 그리고 새로운 질서-1917년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였습니다.

1921년 ICA 대회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합니다. 당시 23개국에서 약 500명의 협동조합인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921년 ICA 대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네덜란드의 협동조합인 후탈트 (G.J.D.C.Goedahart, 1857~1945)는 국제 평화와 조화로운 세계를 위한 조직으로 협동조합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창하며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할 것을 제안, 큰 공감 속에 이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듬해, ICA는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1923년 첫 번째로 기념했

1)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ja/article/world-war-i-abridged-article>

습니다. 또한, 1924년 겐트 대회에서는 ICA의 상징으로서 무지개 깃발을 채택했는데, 이는 비 온 후에 걸리는 무지개처럼 평화와 다양성을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무지개 로고는 2012년 유엔 제정 ‘세계 협동조합의 해’ 직후인 2013년 ICA 칸쿤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더욱 명시하기 위해 새로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²⁾ 100년 전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한 우리들의 협동조합 선배들은 100년이 지나도록 전 세계에서 이날을 기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림1] 국제협동조합연맹의 무지개 로고와 변경된 COOP 로고³⁾

협동조합은 어떻게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가

협동조합인들은 국제 비정부기구이기도 한 ICA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갈등과 대립을 대화로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늘 견지해 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ICA는 어느 쪽에 기울지 않고 정치 진영을 넘어선 협력을 통해 조합원과 일반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이익이나 개별 기업 자체의 이익보다 대중의 생활을 방위하고 개선하는 것이 협동조합 기업의 직접적인 목표였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창설을 이끌었던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데아리에타 신부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리를 “모두를 위한 개선책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오늘날 평화는 점점 더 확실하게 발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⁴⁾ 표현합니다.

2) An interactive timeline on ICA milestones, ICA 웹사이트(ica.coop)

3) [ICA2020] ICA 회장이 전한 신년 인사 "2020년은 기념할만한 해가 될 것", 『라이프인』, 2019.12.25.

4)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데아리에타 지음/박정훈 옮김/정태인 감수,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전자책,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공동발행, 2016년), ‘협동의 새로운 질서’ 중에서.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능, 또는 경제에서의 역할에 일찌감치 주목한 곳은 국제기구들입니다. 1927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개최한 세계경제회의(International Economic Conference)에서는 농산물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농협과 생협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제안하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1943년 설립된 세계농업기구(FAO)에서도 역시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신생독립국의 농촌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ILO가 창립 직후 협동조합 부서를 설치하여 1920~30년대에 세계 협동조합 조직, 연구자, 정부기관에 협동조합의 역할을 알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것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UN 기구 및 ICA, ILO, FAO 등이 협동조합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계조직 COPAC가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창립한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ICA는 비정부기구로서 파트너로서 신생독립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왔습니다. 1992년 12월에 열린 UN 총회에서 I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을 ‘세계 협동조합의 날’로 제정하기로 선언했으며, 1994년 12월 UN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이 경제·사회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각국 정부, 국제기관, 전문기관, 국내외 협동조합 조직들이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매년 기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International Day Of Cooperatives Main



[그림 2] UN 경제사회이사회 ‘세계 협동조합의 날’ 메인 화면⁵⁾

5) social.desa.un.org/issues/cooperatives/international-day-of-cooperatives-main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제: 우리 세상을 전환할 것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와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처음 공통으로 정의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 보고서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 필요와 열망을 조화롭게 충족하기 위해 자원 착취, 투자 방향을 바꾸고, 기술발전의 방향, 제도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⁶⁾

동 보고서의 결론을 국제사회는 행동으로 옮겨서 1992년 185개 국 대표들이 참가한 리우환경회의에서 「리우환경선언」과 「의제 21」이 채택되고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사막화방지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후 2015년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 버금가는 인류의 이정표를 세운 해였습니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파리협약」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국제사회가 약속했습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공통의 언어로 보급되어 세계 곳곳에서 교육, 사업, 투자, 정책 목표들과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 발전은 지구별에 사는 모든 인류의 가장 중요한 복극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제」와 협동조합

2012년은 UN이 제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이는 2009년 12월 몽골에서 열린 제65차 유엔 총회에서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결의문 속에서 명시된 것으로, 그 배경에는 2008년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에서 신탁을 비롯한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고객(조합원)의 예금을 안전하게 지켰으며 탐욕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고 보통 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며 위기에는 회복탄력성을 지닌다는 증거들이 위기 속에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⁷⁾

6)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15번째 단락.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7) 대표적으로 ILO가 펴낸 「경제위기와 협동조합의 회복력: 금융협동조합의 저력」(2013년, 새마을금고중

‘세계 협동조합의 해’ 제정은 한국의 협동조합에 큰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바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진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큰 진전입니다. 만약, 한국 협동조합운동사를 2개의 장면으로 나눈다면, 「협동조합기본법」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해 창업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협업하고 사회적경제라는 우산 아래 뭉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ICA는 2013년 케이프타운 총회에서 2012년 이후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협동조합의 주요 동기이자 정당성의 하나”이며, “협동조합은 장기적인 편익에 더 가치를 둔다.”는 입장이 표명됩니다.

그리고 UN이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여정에 공개작업팀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함께 작업했습니다. 하여, 우리는 동 의제의 본문에 협동조합이 지속가능발전의 실행 주체로서 명시된 점에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41. 국내, 국제사회의 공적 자금은 필수 서비스와 공공재 공급, 타 자원 유치에 촉매작용을 한다. 우리는 소기업에서 협동조합, 다국적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조직 및 자선단체 등 다양한 민간부문이 새로운 의제 실행에 역할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67. 민간기업의 활동, 투자, 혁신은 생산성 및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요 추진자이다. 우리는 소기업에서 협동조합,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민간부문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창조성과 혁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⁸⁾

이어 2016년 세계 협동조합의 날 주제는 ‘2030년을 향한 협동조합: 지구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합니다. 사실, 7년 만에

양회 국문판 발간)에서 드러난 증거 사례들

8) sdgs.un.org/2030agenda

같은 주제를 내건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가능성이 절박한 인류 공통의 과제라는 뜻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뒷걸음쳐졌습니다.⁹⁾ 더욱이,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중동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인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새로운 전쟁과 전례 없는 기후재해, 수천만 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흐지부지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협동조합의 사명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주체, 즉 파트너로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3년 세계 협동조합의 날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파트너, 협동조합** Cooperatives: Partners For Accelerated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협력적인 일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을 기업의 DNA의 일부로서 성취하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¹⁰⁾

저는 올해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축하 메시지에 “평화·다양성은 우리(협동조합)의 DNA. 300년이 지나도록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자고 썼습니다. 100년 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100년 후를 어떻게 상상했을까를 상상해보면, 전쟁이 없어지고 굶주림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꿈과 행복에 몰두할 수 있는 소박한 세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둔 협동조합의 기업 행동을 강화하고 서로 연결될 때에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9) 2022년 5월 유엔이 공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차보고서 2022」 서문에서 안토니오 구티레스 UN 사무총장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연차보고서 데이터는 2020년까지 개선되던 빈곤, 기아, 보건, 교육, 기본서비스 제고와 관련한 SDGs 수치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2, UN.

10) social.desa.un.org/issues/cooperatives/events/international-day-of-cooperatives-2023-cooperatives-for-accelerated



**International
Day of
Cooperatives**